

“나를 찾고싶다” 주부강좌 인기

주부를 대상으로 한 주부학교·주부공부방 등의 교육과정이 최근 두드러지게 많아지고 있다.

여성사회교육의 주요부문으로 새롭게 자리매김되고 있는 주부교육은 여성단체·어머니회·지역사회학교·문화센터·교회·주부모임 등이 중심이 돼 이뤄지고 있는데, ‘깨어 있는 삶과 의식’을 바라는 요즘 주부들의 요구와 맞물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부교육은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오늘 주부의 모습은’ ‘주부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주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에 대해 강연을 들은 뒤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강연에는 단순한 여성운동 이론가나 여성학 전공학자가 아니라 주부이면서 작가, 여성학 학자, 여성운동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연사로 나온다.

이들은 경력(?) 10여년 이상의 전업주부로, 주부들이 부닥치는 문제를 똑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주부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부들과 공감대를 이루어 인기도 높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몇명은 ‘주부문제 전문가’로 꼽히기도 한다. 여성문제 수필집 <절반의 실패> <오늘도 어제가 부끄럽다>의 작가 이경자씨, 여성학 강사인 박혜란·한명숙·지은희·오숙희씨, 여성민우회 주부분과위원장 김상희씨 등이 대표적인 주부문제 전문가이다.

이들은 전국 각지로부터 강연요청이 밀려들어,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주부들에게 ‘깨어 있는

삶과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지난해 <절반의 실패>가 텔리비전 미니시리즈로 소개된 뒤 주부문제 전문가로 떠오른 이경자씨는 한달에 적게는 2~3회, 많을 때는 7~8회 정도 강연에 나선다. 요청이 있으면 어디든 마다지 않고 달려가는 이씨는 “주부들이 전과는 달리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를 찾고 싶다’는 자아실현 욕구가 대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자씨는 여성 의식을 일깨운 공로로 여성단체협의회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로 뽑히기도 했다.

주부들이 좋아하는 연사 가운데 한사람인 박혜란씨는 “주부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간절하지만 한편으론 가정에 묻혀 지내느라

주부들의 자아실현·사회참여 욕구가 커지면서 교육개신·공해·사회문제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모임·교육 등이 늘어나고 있다.

‘깨어있는 삶’ 욕구와 맞물려 큰호응 강연후 토론...교육민주화·공해 관심

대부분 주부작가등 연사...같은 입장서 대안 제시 공감대

남에게 뒤졌다는 자아상실감이 엄청나게 큰 편”이라고 분석하고 “그러나 요즘 주부들은 자아상실감에 빠져 절망한 상태로만 있지 않고 ‘깨어 있는 의식’을 위한 주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각 학교 육성회, 어머니회로부터도 강연요청을 자주 받는다는 박씨는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키우고, 공부 잘하게 할 수 있을가에 골몰하던 주

부들이 교육민주화·공해·여성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얘기해 달라라는 것은 주부들의 의식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주부들이 주부교육현장,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주부아카데미, 생활협동조합운동, 공해반대운동 등 실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는 이런 운동에 참여하는 주부들은 고립된 개개

가정의 살림꾼이 아니라 공동체 살림을 일구려는 ‘사회주부’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박씨는 덧붙였다.

주부교육을 받은 많은 주부들은 “집안이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나를 개발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겠다” “남편과 아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도 꾸려나가야겠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털어놓는다.

7월초 국교 5학년인 큰아이가

다니는 학교 어머니회가 주최한 주부강좌를 들은 뒤 이웃주부들과 함께 1주일에 한번씩 만나 여성문제 책읽기, 돈봉투 없애기, 생활 속의 공해추방운동을 펴고 있다는 윤미숙(35·관악구 봉천동)씨는 “늘 왠지 자신없던 내가 이제 삶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살림하면서도 사회개혁에 동참하



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산다”고 말했다.

올 들어 ‘주부운동’을 주제로 한 강연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밝힌 여성민우회의 김상희씨도 “현재는 집안일을 주부가 전담해야 하는 불평등구조이지만 사회의식이 변화하기 전까지는 자투리 시간이나 교육개신·소비자문제·물가인상·경제정의·주택·공해·농촌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찬아카데미의 주부아카데미, 여성민우회의 주부분과 등이 꾸준히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데 이어 ‘또하나의 문화’도 주부들의 의식변화에 맞춰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오는 16일부터 11월15일까지 ‘주부공부방’을 열 계획이다.

<신연숙 기자>